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물류연구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세계 물류동향 중 국제물류투자 협의체 회원사들(2009.9 현재 122개 업체)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신규 해외사업 발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합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들과 국토해양부 관계관 여러분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 수요일 배포됩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글로벌 물류 신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회원사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우리 센터는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 여러분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 관련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매체로서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 목 차 >

□ 폴란드, 2013년까지 3대 「컨」항만 집중 개발 계획	2
□ COSCO Pacific사, 글로벌 터미널 네트워크 확대키로	4
□ 인도 국영선사 SCI, 항만터미널 사업 등 합작 파트너 물색	5
□ 시리아 항만 민영화로 「컨」 처리물동량 증가 전망	6

□ 폴란드, 2013년까지 3대 「컨」항만 집중 개발 계획

- 폴란드 기간산업부(Ministry of Infrastructure)는 2013년까지 Gdynia항, Gdansk항 및 Szczecin/Swinoujście항의 3대 컨테이너 항만을 집중 개발할 계획
- 폴란드 항만당국은 수출 컨테이너 물량 중 40~60%가 자국 항만시설의 미비로 Hmburg항 등 타 항만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3대 컨테이너 항만 현황 및 개발계획

【 Gdynia항 】

- 2008년 610,767 TEU 처리(2007년 614,373 TEU)
- 홍콩 Hutchison사의 Gdynia Container Terminal(GCT, 2선석 366m, 수심 10.5m)과 필리핀 ICTSI사가 운영 중인 Baltic Container Terminal(BCT, 42선석 800m, 수심 11~13m)의 양대 터미널에서 컨테이너 처리
- Gdynia Container Terminal이 위치한 Bulgarskie Quay 선석을 250m 확장할 계획



【 Gdansk항 】

- 2008년 185,661 TEU 처리(2007년 96,873 TEU)
- Gdansk Container Terminal(GTK, 365m, 수심 9.2m)과 Deepwater Container Terminal (DCT Gdansk, 365m, 수심 9.2m)의 양대 터미널에서 컨테이너 처리

< Gdansk Container Terminal >



< DCT Gdansk >



- DCT Gdansk 기존 터미널의 선석을 350m 추가 확장하여 연간 1백만 TEU의 처리능력을 갖춘 터미널로 개발할 계획



【 Szczecin/Swinoujscie항 】

- Szczecin/Swinoujscie항은 발트해에 바로 인접한 Swinoujscie항과 내륙 쪽으로 위치한 Szczecin항의 두 항만으로 구성
 - Swinoujscie항의 VGN Container Terminal(선석 330m, 수심 14.5m)에서 2008년 62,913 TEU 처리(2007년 56,321 TEU)
 - 두 항만의 기존시설을 현대화하고 터미널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
- 폴란드 정부는 위 3대 항만의 개발에 모두 12억 4천만불(약 1조 5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일부재원은 「EU교통인프라기금」에서 지원받는 방안을 추진 중

자료 : GCT, BCT, DTK, DCT Gdansk, ZMPsIS SA, Fairplay International Shipping Weekly 2009.9.3

□ COSCO Pacific사, 글로벌 터미널 네트워크 확대키로

○ COSCO Pacific사 개요

- 세계 5위의 컨테이너 터미널 사업자(GTO)로 2008년에 45,878,875 TEU 처리
- 2007년 처리량 39,982,605 TEU에 비해 17.7% 증가
- China COSCO Holdings사가 50.96% 지분 보유, 49.04%의 지분은 일반 투자자 보유
- 2009.9 현재 중국내 15개 항만, 해외 4개 항만의 자사 터미널에서 총 146선석(연간 처리능력 7,720만 TEU)을 운영 중
- 2009년 상반기 순이익은 1억 451만불로서 전년 동기의 1억 5,315만불 대비 31.8% 감소, 매출액은 1.87% 감소(2,020만 TEU 처리)

○ COSCO Pacific사의 글로벌 네트워크 현황



- COSCO Pacific사는 최근 자회사인 CP Logistics사가 소유하고 있던 COSCO Logistics사의 지분 49%를 모기업인 China COSCO Holdings사에 2억 9,260만불에 매각한다고 발표
- China COSCO Holdings사는 이번 지분 추가로 COSCO Logistics사의 지분 100%를 소유
- COSCO Pacific사의 자회사 지분 매각은 해외 터미널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본업인 컨테이너 터미널사업에 전념토록 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분석

자료 : COSCO Pacific, Seatrade Asia 2009.9.14, 로이터통신 2009.8.27

□ 인도 국영선사 SCI, 항만터미널 사업 등 합작 파트너 물색

○ SCI(Shipping Corporation of India) 개요

- 1961.10.2 인도동방해운(Eastern Shipping Corporation)과 인도서방해운(Western Shipping Corporation)의 합병으로 탄생된 인도 국영선사로서 19척의 선대로 출범
- 현재 83척, 460만 DWT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 전체 선복량의 약 35% 차지
 - 탱커 선복량이 전체 선대의 약 80%를 점유, 31척의 신조선(15억불 상당) 발주 중

○ 재무지표 분석

- 자본금 4,234,536,450 루피(약 1,060억원), 발행주식수 423,453,645주(액면가 10루피)
 - 인도정부가 80.12%의 지분을 보유, 19.88%의 지분이 기관 및 일반에 공개
- FY 2008/2009 매출액 416억 루피(약 1조 400억원), 당기순이익 94억 루피(약 2,300억원)
- 2009.9.7 SCI사 주가 141.5 루피(Mumbai 증권시장), 액면가의 약 14배 수준
 - 주가수익비율(PER : Price Earnings Ratio) 6.37, 주당순이익(EPS : Earnings Per Stock) 22.21 루피

○ SCI사는 사업 다변화를 위해 항만 터미널 및 조선소 합작 건설을 추진 중

- 아직 구체적인 진전사항은 없으나 현재 항만 터미널 및 조선소 건설의 파트너사로 각각 인도 국내외 4~5개 기업과 초기단계 협상 진행 중
 - 인도 국내의 항만 터미널 및 조선소 설립에 국한하여 사업 추진 예정
- 합작회사를 신규로 설립하는 방식이며 기존 기업의 M&A는 대안에서 제외

※ SCI사의 합작회사 설립 추진 사례

1. Irano Hind Shipping Company : 이란 Islamic Republic of Iran Shipping Lines (IRISIL)와의 50:50 합작으로 1973.5 설립된 선사
2. Petronet LNG project : 일본의 MOL, NYK, K-Line과의 합작으로 2004.1 설립된 카타르산 LNG의 운송 프로젝트, SCI사가 34% 지분 보유
3. 인도 최대 철강 생산업체인 Steel Authority of India(SAIL)사와 50:50 JV 설립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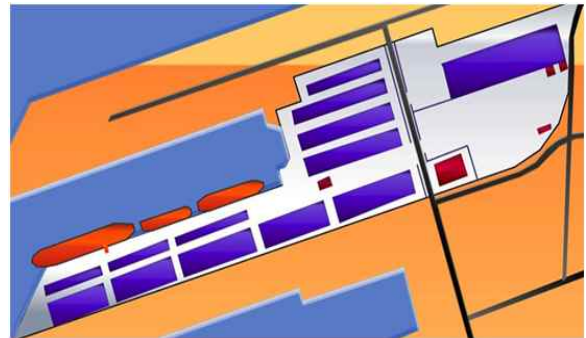
자료 : Shipping Corporation of India, Wall Street Journal 2009.9.2

□ 시리아 항만 민영화로 「컨」 처리물동량 증가 전망

- 시리아 해운부(Ministry of Maritime Transport)가 2007년 말부터 추진하여 온 항만 민영화 정책에 힘입어 시리아의 양대 컨테이너 항만인 Tartous항 및 Lattakia항의 처리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Tartous 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TICT) : 필리핀의 ICTSI사가 운영 중
 - 540m 선석, 수심 13m, 야드면적 25ha(25만m², 약 7만 6천평)
 - 2007년말 ICTSI사가 운영을 개시한 이후 2009년 상반기 컨테이너 처리량은 26,360 TEU로서 전년 대비 44%가 신장
 - 시리아 해운부가 2009.2 TICT에 환적 컨테이너의 독점적 처리권을 부여함에 따라 환적물량의 꾸준한 증가가 예상



- Lattakia Container Terminal : 프랑스 CMA CGM사 운영 중
 - 일반화물 및 컨테이너 3선석에서 2008년 57만 TEU 처리
 - 2009.2 10년 운영계약(Concession)을 체결한 CMA CGM사는 2012년까지 시설확충을 통해 연간 100만 TEU 처리능력을 갖추 계획

자료 : Tartous 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Lloyd's List 2009.9.3

유재만 연구위원(☎ 02-2105-4964, yoojmn@kmi.re.kr)